

'아름다운 거리'에서 광주프린지페스티벌

'프린지페스티벌' 24일 옛 전남도청 일원...아프리카타악그룹 등 참가 '광주거리예술축제' 31일부터 총장으로 일원...서커스·공중퍼포먼스 등

올해 프린지페스티벌은 광주프린지페스티벌, 광주거리예술축제 등 2개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지난달 25일 비대면 개막한 프린지페스티벌은 콘텐츠가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는데 지금까지 16회 중 7회를 선보였다. 올해는 코로나로 어려운 지역예술계를 감안해 참가단체의 70%를 지역단체에 배정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동안 코로나19 탓에 온라인으로 진행해왔던 프린지페스티벌이 5·18민주광장 일원에서 펼쳐진다. 또한 지난해까지 ACC광주프린지인터네셔널로 개최됐던 광주거리예술축제도 현장(5·18광장 및 총장로)에서 시민들을 만난다.

광주문화재단은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프린지페스티벌을 오는 24일, 거리예술축제를 오는 31일~11월 1일, 11월 7일~8일 5·18민주광장과 총장로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슬로건은 '아름다운 거리'. 5·18광장과 총장로 일대가 거리예술축제를 만나 아름다운 거리로 변모할 것이라는 기대다. (공연별 관람인원을 제한하며 2단계 격상 시에는 사전예약제로 전환한다)

먼저, 24일 오후 2시부터 펼쳐지는 프린지페스티벌은 모두 16개의 공연단체가 참가한다.

아프리카타악그룹 아나포는 '태양의 아프리카'를 주제로 원초적인 생명력과 에너지틱한 리듬을 선보인다. 우리의 신명과 닮아 있는 아프리카 열정을 독특한 연주로 풀어낸다. 판소리예술단 소리화는 '소리화 아리랑'을 테마로 우리소리의 DNA를 꽃피운다. 판소리와 아

리랑을 접목한 음악의 전환이 돋보인다.

화려한 버블 쇼와 신기한 풍선아트도 볼 수 있다. 21세기 라온기획은 '꿈과 희망을 주는 행복바이러스'를 주제로 버블 공연을 선보이고 타악그룹 얼수는 '인수화풍(人, 水, 火, 風)'을 주제로 물, 불, 바람이라는 원초적 느낌을 타악으로 표현한다.

또드락 전통연희 예술단의 'Do Dream 두드림'은 국악이 지루하다는 편견을 깬다. 무엇보다 가, 무, 악이 포함된 전통타악 퍼포먼스는 관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위대한 공연단의 '바라이어티 B급쇼'는 마술사가 보여주는 작은 서커스로 저글링, 서커스 공연, 불쇼, 타력, 풍선아트까지 보여준다.

전통타악연구회 두드리는 전통 예술의 종합선물세트 같은 공연을 펼친다. 쇠, 징, 북, 장구, 소고 등의 사물 악기가 한데 어우러진 판곡, 가락연주, 상모놀이 등 전통예술을 느낄 수 있다.

이밖에 태무용단 '노르당가브서', 광주팝오케스트라 '2020 광주프린지 팝스콘서트', Ola '올라리오!', 아톰키즈엔터테인먼트 '꿈지와 왕콧구멍', 아톰키즈엔터테인먼트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감성광대제로 '감성광대 이야기', 시니엔터테인먼트 '신디스토리'도 볼 수 있다.

이번 광주프린지페스티벌 또 다른 축인 '거리예술축제' (감독 임수택)는 축제를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에 초점을 맞췄다. 국내 최고 예술가들이 거리극, 서커스, 공연, 공중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누구나 즐길 수 있게 무대를 마련했다.

참가단체들의 면면도 화려하다. 자연재해, 국가적 이



수직구조에서 중력을 거스르는 수직의 '포스'.

슈 등 아픈 시대상을 비추는 활동을 펼쳐온 댄스씨어터창, 광주의 대표 마당극 단체인 놀이패 신명, 역동적 무대예술을 선보여온 온앤오프무용단 등은 이색적인 무대를 선보인다. 또한 제주를 중심으로 다원예술퍼포먼스를 펼치는 살거스, 대만 Iron Ros Festival에 국내 최초 초청됐던 공중 퍼포먼스 극단 단디 등도 포함돼 있다.

눈여겨볼 만한 작품으로 모던테이블의 '다크니스 폼바'와 단디의 '평화의 빛'을 들 수 있다. 전자는 폼바를 현대무용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서민들의 애환과 슬픔을 드러낸다. 무용수들은 '폼바'를 부르며 강렬하고 빠른 속도로 춤을 추는데, 마음 속 깊이 드리워진 두려움과 공포를 풀어낸다. 후자는 어둠이 일상이 된 사람들, 한줄기 빛조차 허용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작은 불빛이라도 주기 위해 기획됐으며 격렬한 안무와 퍼포먼스가 압권이다.

자세한 내용은 프린지페스티벌 사무국 홈페이지(www.fringefestival.kr) 참조. 문의 062-223-0410.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사랑합니다-희망 4'

해바라기 꽃이 한가득

박유자 개인전, 11월20일까지 담양 명지미술관

서양화가 박유자 작가는 '해바라기 작가'로 불린다. 지난 2002년부터 그녀가 담아내는 다양한 모습의 해바라기는 희로애락이 담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녀가 해바라기에 주목했던 건 하늘을 향해 목을 길게 늘린 해바라기에서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잠시 해바라기를 벗어나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대나무를 전시 주제로 삼아 개인전을 열었던 박 작가가 다시 해바라기 작품으로 관람객들을 만난다.

박유자 작가 18번째 개인전인 오는 11월 20일까지 담양군 고서면 명지미술관에서 열린다. '2020 희망전'이라는 타이틀이 붙은 이번 전시에서는 신작 26점을 선보인다.

전시장에 걸린 작품들은 기존의 해바라기 작품보다 훨씬 밝고 풍성해졌다. 코로나로 누구도 만나지 못하는 '단절'을 경험하며 그녀는 '함께'라는 가치에 주목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싶었다. 작업실에서 해바라기와 대면하며 위로받고 치유받은 작가는 그 감정들을 작품 속에 쏟아냈고 그 기운을 관람객들에게 전해주려

한다. 신작 해바라기에서 두드러지는 건, 배경으로 등장하는 태양과 달과 빛으로 사람들에게 따뜻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노란색을 적극 활용해 희망을 전달하고 있다.

해바라기를 상징하는 노란색 꽃잎은 모든 작품에 등장하지만 보라, 주황, 파랑 등 다채로운 바탕색과 함께 어우러진 해바라기꽃은 각기 다른 느낌으로 다가온다.

박 작가는 "갑자기 닥친 코로나 19 상황에 작가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해왔고 그림을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캔버스에 그려낸 해바라기를 통해 어둠과 힘든 상황에도 여전히 우리 곁에는 '희망' 있다는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선대 미술대 서양학과를 졸업한 박 작가는 지금까지 17번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다양한 아트페어와 단체전에 참여했다. 현재 사단법인 에쁘고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비엔날레, '도슨트 교육과정' 26일까지 참여자 모집

(재)광주비엔날레가 제13회 광주비엔날레에서 전시해설사로 활동하게 될 '도슨트 교육과정' 참여 희망자를 오는 26일까지 모집한다.

교육 내용은 현대미술이론 및 도슨트 역할과 태도 등 전시해설사 기초교육과 제13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및 작품·프로그램 분석, 공간 분석, 도슨트 실습 등 전문소양교육의 심화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서류심사를 거쳐 면접심사 합격자 대상으로 기초교육이 실시된다. 도슨트 기초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에 한해 해설사

연을 통한 최종 선발 후 광주비엔날레 도슨트 활동 자격이 부여된다. 도슨트 활동 기간은 내년 2월 25일부터 5월 9일까지이다.

지원 자격 및 선발기준으로 관련 학과 졸업 및 졸업 예정자 또는 이와 상당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이며 성별 및 연령 제한은 없다.

교육 기간은 오는 11월 9일부터 2021년 2월 9일까지 총 64시간이다. 문의 062-608-423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불놀이와 연극을 결합한 살거스의 '제네스'는 역동적이고 독특한 세계, 그 세계의 언어를 구현한다.

'빛의 프리즘, 빛의 정원을 거닐다' 미디어사파드 영상에 무용·발레·재즈댄스...24일 금남로공원

화려한 미디어사파드와 춤, 클래식 연주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공연이 펼쳐진다. '빛의 프리즘, 빛의 정원을 거닐다'가 그것.

J&아트컴퍼니가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다양한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장르의 경계를 넘어선 융·복합 무대로, 오는 24일 오후 7시 금남로공원(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열린다. 코로나로 지친 광주시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비발디의 사계'에 맞춰 한국의 봄·여름·가을·겨울을 그려낸 미디어사파드 영상과 함께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재즈댄스가 펼쳐진다.

특히 금남로공원이 가지고 있는 옅푸른 들머리 구조의 독특함을 살려 3층으로 무대를 만들어 입체감을 살리고, 나무들을 오브제로 활용할 예정이다. 공연 전체에서 미디어아트를 만날 수 있으며, 지상에서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지하에서는 춤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계절별로 주제를 다르게 구성해 다양한 종류의 사랑을 각기 다른 장르의 춤으로 풀어내며, 남녀노소 누구나 느끼는 감정인 사랑, 질투, 이별, 그리움 등을 융·복합예술로 그려낸다.

공연은 조가영 안무가의 작품해설로 시작한다. 이어 광주여성필하모닉 실내악단과 바이올리니스트 박승원

이 연주하는 비발디의 '사계'에 맞춰 무용가들이 열정적인 춤을 선사한다.

1장 '사계' 중 '여름' 무대에는 박종현·김민석·정보배가 올라 현대무용으로 여름을 형상화하며, 2장 '가을'에서는 조성미·강병창이 풍요로운 가을을 맞는 가을맞이 발레를 선사한다. 한국무용수 김운현·이반아는 눈의 천사로 변신해 3장 '겨울'을 표현한다.

마지막 '봄' 무대에는 이주희·이상우·박종호·전아름 등이 올라 재즈로 새싹이 돋고 꽃이 피는 봄을 나타낸다. 문의 062-223-0658.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빛의 프리즘, 빛의 정원을 거닐다'가 오는 24일 오후 7시 금남로공원에서 열린다.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